

새로운 투자시대에 대한 전술적 접근

*AsianInvestor*와 S&P 다우존스 지수(S&P DJI)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은 자산선택에 있어 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2021 년의 자산배분 지역, 이유, 방법을 결정할 때 장기적인 자본성장, 다각화, 지속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요 자산 보유자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경제 및 시장의 등락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본성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상장 증권과 북미 사모시장 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의 영향력이 목표 자산과 투자 프로세스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국부펀드, 정부기관, 보험회사, 공공 및 민간 연금펀드, 기부금, 민간은행, 기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산 보유기관 소속 고위 투자임원 105 명의 견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위 투자임원들은 홍콩, 대만, 호주,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에서 2021 년 3 월부터 4 월까지 *AsianInvestor*와 S&P DJI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설문조사의 핵심 사항

- 응답자들은 2021 년에 주식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크게 증가(백분율 기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응답자의 약 25%는 ESG 투자테마가 2021 년에 가장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추가 데이터 및 분석 도구를 통해 ESG 요소를 통합하는 전략은 투자자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 응답자들은 향후 6 ~ 12 개월 내에 보다 패시브한 전략을 사용할 '높은' 가능성(13%)이 있거나 그렇게 할 '중간' 확률(45%)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포트폴리오 위험은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36%)이었고, 유동성 불확실성(2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올해에도 외부 관리자에게 아웃소싱할 때 여전히 가상실사를 선호하며(45%), 응답자의 27% 정도는 새로운 외부 관리자를 추가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견해는 S&P DJI 가 아시아의 주도적 테마로 판단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빠른 회복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확실히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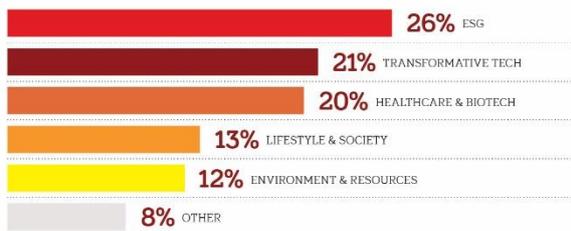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의 회복세는 정부 부양책, 통화완화 정책, 대규모 투자로 뒷받침되었고, 자산군 전반에 걸쳐 금리,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S&P DJI 전략지수의 수석 이사 Tianyin Cheng 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환을 위한 포지셔닝은 많은 투자자가 배분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 년에 많은 응답자들의 전술적 노출 테마의 중요성을 반영하는데, 지리적 다양성보다 더 뚜렷하며 섹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투자할 때 응답자들은 올해 가장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ESG(26%)에서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환적 기술(21%)과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2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What theme do you think will offer the highest risk-adjusted returns this year?



What will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your allocation decision this year?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에 부합하게 응답자들은 추가 데이터 및 분석 도구를 통해 ESG 요소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대유행 이후 환경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선호하는 경로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지만, 지금은 전환점에 있습니다.”라고 Cheng 은 설명합니다. “지금은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자금과 더불어 행동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솔루션 등 기술 및 더 나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외부 액티브 매니저의 성과를 더 면밀히 조사하려는 의도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우선 순위 목록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용도를 낮추거나 더 많은 투자 직원을 고용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What appeals to you most for enhancing returns as we emerge from Covid-19?

- | | |
|---|--|
| <p>1 </p> <p>INCORPORATE ESG FACTORS VIA ADDITIONAL DATA/ANALYTICAL TOOLS</p> | <p>2 </p> <p>IMPLEMENT TECHNOLOGY AND BETTER SYSTEMS (SUCH AS AI/BIG DATA SOLUTIONS)</p> |
| <p>3 </p> <p>MORE CLOSELY SCRUTINISE ACTIVE MANAGER PERFORMANCE</p> | <p>4 </p> <p>TAKE MORE RISK (SUCH AS GOING DOWN THE CURVE, INVESTING IN FRONTIER MARKETS, ETC)</p> |
| <p>5 </p> <p>ADD MORE INTERNAL INVESTMENT RESOURCES</p> | <p>6 </p> <p>SEEK CO-INVESTMENTS WITH OTHER INVESTORS</p> |

집중적인 노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테마 견해를 구현하고 오늘날의 도전적인 투자환경에서 전술적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상장주식을 2021 년에 비중을 추가할 가장 바람직한 자산군으로 지목했습니다. 상장부채는 2 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추구하는 특정 투자자들은 사모시장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특별히 사모주식에 높은 비중을 두는 전략을 선택했고, 사모채권 및 부동산도 선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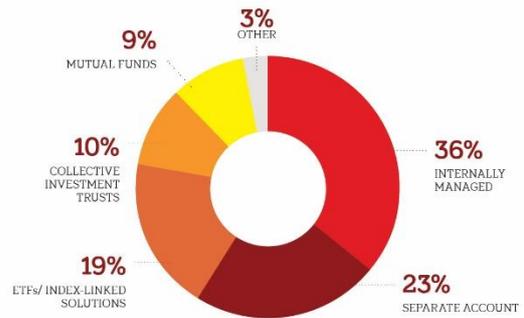
Cheng 은 실물자산과 대체자산을 언급하면서 “상장채권에 대한 대체물에 자산배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동 대체자산은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전통적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매우 체계적이어서 투자자들이 대체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만드는 지수화에 적합합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은 내부 운용 접근방식(36%)과 일임계좌(23%), ETF 또는 지수연계 솔루션(19%)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To which of these asset classes will you increase exposure by the largest % in your portfolio i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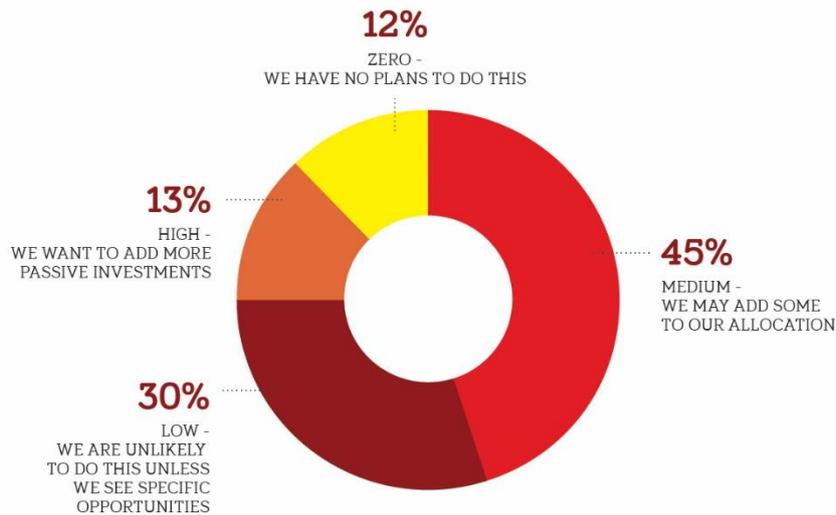
What is your preferred vehicle for your preferred exposure?



패시브 투자에 대한 낮은 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향후 6 내지 12 개월 동안 패시브 전략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3%가 패시브 전략이 증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봤고 45%는 “중간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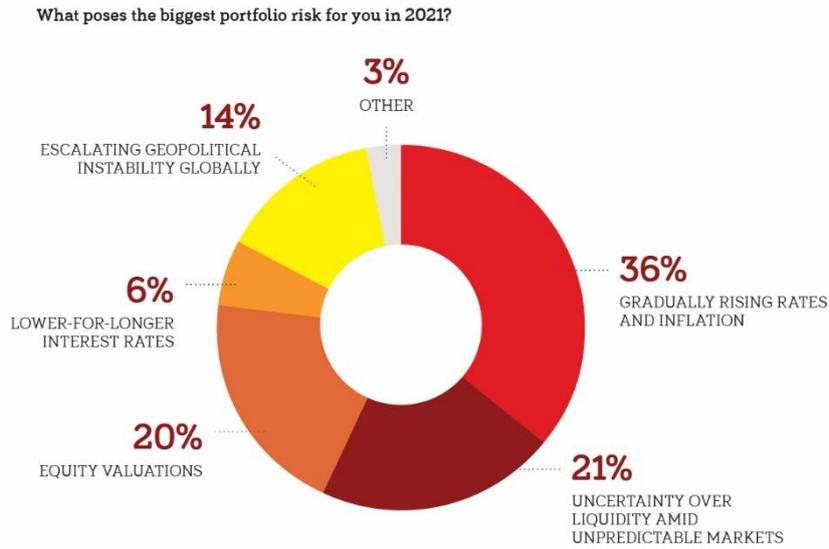
액티브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고한 초점을 맞춘 양상에는 아시아의 광범위한 추세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패시브 상품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Cheng 은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아시아 기관에서 패시브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How likely are you to use more passive vehicles/strategies in the next 6 to 12 months?



또한 응답자의 36%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상장자산과 사모자산의 이상적인 조합이 2021 년에 겪을 가장 큰 위험인 점진적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응답자의 21%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유동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20%는 주식 밸류에이션을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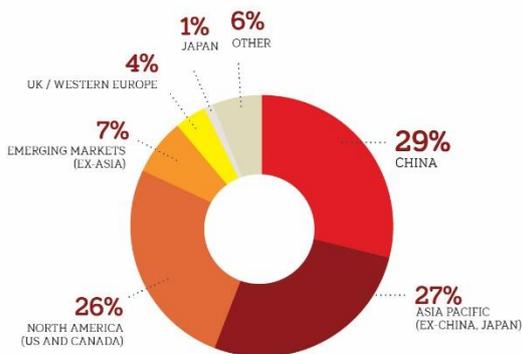


지리적으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은 상장증권 투자 대상지역으로 보입니다. 수익률 창출 기준 측면에서 응답자 다수(29%)가 중국이 올해 가장 매력적이라고 답했고 근소한 차이(27%)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26%도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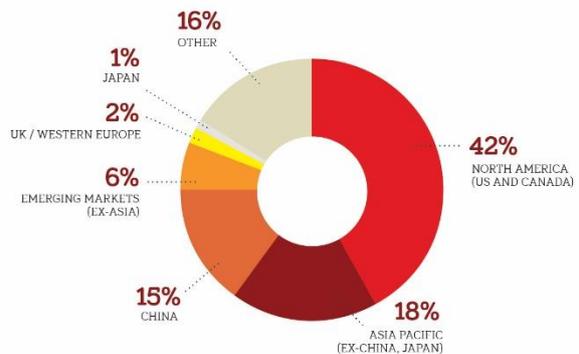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파워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Cheng 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성장하는 경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모시장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북미 지역에 대한 선호도 뚜렷합니다. 응답자의 46%는 미국과 캐나다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이머징마켓도 다소 관심을 끌었습니다.

For listed securities, which region is most appealing in terms of opportunities to generate returns?



For private market assets, which region is most appealing in terms of opportunities to generate returns?



고려된 선택

자산군과 상품, 지역과 상관없이 새로운 투자현실로 인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투자자 다수는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올해 자산배분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표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하면 현금수익, 인컴, 인플레이션 방어, 비상관적 수익률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전략의 일환으로 타사 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이 다른 펀드들을 평가할 때 벤치마크 대비 펀드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바꾸지는 못했고 그 다음 기준으로는 투자전략의 운용실적이 고려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실사 과정에서 매니저의 ESG 원칙을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w your main focus when assessing different funds?



그렇지만 투자자의 27%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외부 매니저를 추가할 계획이 없습니다. 외부 매니저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위탁할 때 가상실사를 계속해서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전망과 기대를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Cheng 이 덧붙였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보다 양호하고 정보에 바탕을 둔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외부 제공업체에게 정보와 지원을 구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What is your preferred approach this year when outsourcing to external managers?

